

愚伏 鄭經世의 輓詩를 통해 본 죽음의 形象化 方式

손유진*

【 차례 】

- I. 들어가며
- II. 愚伏 輓詩의 규모와 분류
- III. 輓詩에 나타난 죽음의 形象化 方式
 - 1. 典故를 차용한 관습적 形象化
 - 2. 서사적 진술을 통한 구체적 形象化
- IV. 愚伏 輓詩의 서정성
- V. 나오며

【 국문초록 】

본고에서는 조선 중기 대표적 禮學者인 愚伏 鄭經世(1563-1633)의 만시를 대상으로 하여, 여기에 나타난 죽음의 形象化 방식과 지인의 죽음에 대처하는 작자의 태도를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시어와 표현이 관습화되어 있는 만시의 일반적인 특징처럼, 우복의 만시에서도 동일한 典故나 用事가 서로 다른 인물에 대한 만시에서 상투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 전개 방식 또한 고정되어 있는 모습을 보인다. 즉 우복은 공적 관료의 입장에서 만시를 지을 때에 만시 대상 인물의 인물됨과 그의 죽음에 대한 자신의 감회를 서술하면서, 죽음과 관련된 일반적 전고를 차용하되 대상 인물과 자신의 관계를 고려하여 상황에 맞는 관용구를 활용하였다. 이러한 관습적 形象化의 방식으로 대상 인물의 공적 지위나 사회적 위상을 부각시키고 여기에 각 인물

*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과 연관된 자신의 기억을 특별히 附加함으로써 관습적 표현으로 인한 상투성을 극복하였다.

반면 만시의 대상이 친우나 친족일 경우에도 장르 자체의 관습성 때문에 구성 방식에서는 인물에 대한 평가와 자신의 감회라는 일반적 구성을 취하고 있지만, 그 내용에서는 앞의 경우와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즉 만시에서 절반 이상 언급된 대상 인물과의 기억은, 그의 문집 곳곳에 남아 있는 기록을 찾아 읽을 때에 마침내 한 편의 완전한 서사물처럼 완결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우복이 개인적 친분에 의한 만시를 지을 때에, 전반부에 인물과의 인연을 길게 배치시킴으로써 만시의 관습성을 뛰어넘고자 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그는 상황에 맞는 전고의 인용이나 시구에 대한 自註를 통해 구체성을 보완하여 만시의 장르적 제약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의도는 대상 인물과 관련된 문집 속의 여타 기록들 속에서 이해할 때, 창작의 맥락이 온전히 이해되고, 작품의 특징 또한 선명히 부각되도록 한다.

주제어

정경세, 만시, 죽음, 관습성, 구체성, 서정성

I. 들어가며

輓詩는 작자가 주변인의 죽음을 목도한 후, 대상 인물의 삶에 대한 평가와 그의 죽음에 대한 자신의 悲感과 감회를 읊조림으로써 망자의 죽음을 애도하는 시이다. 죽음을 애도하는 글로는 만시 외에도 祭文과 墓碣 및 墓誌銘, 碑文과 碑銘 등이 다양하게 존재한다. 만시는 이러한 글 중에서도 특히 서정의 방식으로, 亡者에 대한 작자의 평가와 죽음에 임하는 화자의 심리적 대응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장르이다. 그러므로 만시 자체가 지니는 관습적이고도 의례적인 속성에도 불구하고, 망자와 작자의

생전의 관계에 따라 만시에 나타난 죽음의 형상화 방식은 多岐한 양상을 지닐 수 있게 된다.

최재남은 이런 만시의 특징에 주목하여, 만시 중에서도 ‘개인적이고도 사적인 동기에서 씌어진 죽음의 시들, 즉 주로 육친의 죽음의 슬픔을 애도한 시’를 哀悼詩라 규정하며 그 구성막식과 문학적 표현 관습 등을 고찰한 바 있다.¹⁾ 이후 안대회가 조선후기 만시를 대상으로 한시에 나타난 죽음의 문제를 다루었고,²⁾ 2010년대에는 개별 작가의 만시에 나타난 문학성을 究明하려는 연구자들의 노력이 지속되어 왔다.³⁾ 이러한 일련의 연구를 통해 의례적이고 관습적으로 창작된 듯 보이는 만시에서도 작가적 역량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으며, 그것은 작자와 망자의 관계에 따라 문학성은 물론 미학적 특질까지 지닐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왔다.

본고는 조선 중기 대표적 禮學者인 愚伏 鄭經世(1563-1633)의 만시를 대상으로 하여, 여기에 나타난 죽음의 형상화 방식과 지인의 죽음에 대처하는 작자의 태도를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조선 중기에는 『朱子家禮』의 보급이 확대되고 동시에 家家禮에 의한 禮制가 확립되어 가는데, 이 과정에서 喪禮 또한 규범화되어 整齊되었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제적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감정적 영역 안에서 여전히 죽음은 매번 새로운 충격이자 고통으로 각인되었을 것이다. 그러

1) 崔載南, 「韓國 哀悼詩의 構成과 表現에 대한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2) 안대회, 「韓國 漢詩와 죽음의 문제-조선후기 輓詩의 예술성과 인간미-」, 『韓國漢詩研究』 3, 1995, 49-80쪽.

3) 전제강, 「寒岡 輓詩의 성격 연구」, 『국어교육연구』 46, 국어교육학회, 2010, 245-272쪽.

이남면, 「鄭斗卿 輓詩 연구」, 『大東漢文學』 35, 2011, 239-276쪽.

河政承, 「고려후기 輓詩에 나타난 죽음의 형상화와 미적 특질-목은 이색의 시를 중심으로-」, 『東方漢文學』 50, 2012, 35-64쪽.

므로 만시는 喪禮와 함께, 당대 유교문화 속에 살았던 사람들이 죽음에 대처하는 자세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밝히기 위해, 2장에서는 먼저 우복의 만시 작품을 개괄하여 살핀 후 3장에서 구체적으로 죽음의 형상화 방식을 논할 것이다. 이는 크게 작자와 망자의 관계에 의해 두 가지 양상으로 분류된다. 곧 典故를 借用한 慣習의 形象化 방식과 敘事的 陳述을 통한 具體的 形象化의 방식으로, 이러한 형상화 방식 중 특히 두 번째 방식이 우복 만시의 특징을 밝히는 데 주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II. 愚伏 輓詩의 규모와 분류

『愚伏集』에는 만시를 비롯하여 총 190여 수의 시가 실려 있다. 이 중 만시는 38제 42수로, 그의 전체 작품 중 약 20% 정도를 차지하는 분량이다. 이는 그가 시 짓기를 小技로 여겨 즐겨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할 때, 결코 적은 수효라 할 수 없다.

시 짓기를 즐기지 않던 우복이 누군가의 죽음에 대하여 만시를 남겼다면, 그것은 요청에 의한 것이든 자발적 의지에 의한 것이든 간에 망자의 죽음에 대한 자신의 감회가 일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우복의 만시의 규모를 제시하고, 이를 대상과 詩形에 따라 간략히 분류하여 경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 1〉 『愚伏集』 소재 만시 작품의 규모

卷首	詩題	대상 인물	詩形	연도
1	從叔參奉挽詞	從叔	칠언고시	1605
	鄭相國 挽詞	鄭琢	오언율시	1605
	挽金省克昌遠	金弘微	칠언율시	1604-1605
	挽趙月川	趙穆	칠언율시	1606 추정
	西厓先生挽詞	柳成龍	칠언율시 3수	1607
2	哭趙汝直	趙正立	칠언율시 2수	1612 추정
	挽姜報恩	姜靄	칠언율시	미상
	挽呂德甫	呂裕吉	오언고시	1619
	鄭寒岡挽詞	鄭述	칠언율시 2수	1620
	挽成士悅	成澗	칠언율시	1620 추정
	趙柴仲翊改葬挽詞	趙翊	칠언율시	1621 추정
	挽盧甥碩命	盧碩命	오언고시	1622
	挽任正言叔英	任叔英	칠언고시	1623
	挽鄭大司成時晦曄○乙丑	鄭曄	오언고시	1625
	挽曹承旨汝益友仁	曹友仁	칠언율시	1625 추정
	挽黃持平會甫紐○丙寅	黃紐	오언율시	1626
	啓運宮挽詞	仁獻王后	오언고시	1626
	挽宋榮川爾昌○丁卯	榮爾昌	칠언율시	1627
	挽晚翠吳老億齡	吳億齡	칠언율시	1627 추정
	大院君遷葬挽詞	定遠大院君	오언고시	1626
	挽申領相欽戊辰	申欽	오언고시	1628
	挽李判書潤卿粹光	李粹光	칠언고시	1628
宣祖大王遷陵挽詞	宣祖	오언고시	1630	
挽李生裕後	李裕後	칠언율시	未詳	
別集	金監司宇宏挽詞	金宇宏	칠언고시	1590 추정
	高翠屏應陟挽詞	高應陟	칠언율시	1605추정
	挽金汝遇	金光斗	칠언율시	1608추정
1	貞敬夫人李氏遷葬挽詞	貞敬夫人李氏	칠언율시	미상

尹希庵挽詞	尹瑱	오언고시	1612
挽權司諫春蘭	權春蘭	칠언율시	1617 추정
挽吳黃澗克成	吳克成	오언고시	1616 추정
挽金參議道源涌	金涌	칠언율시	1620 추정
挽呂郡守大老	呂大老	오언고시	1619 추정
挽金上舍以亨	金以亨	칠언율시	1617 이후
挽李伯明	李伯明	칠언율시	미상
挽沈舍人光世	沈光世	오언율시	1624 추정
挽韓柳川益之	韓浚謙	칠언율시	1627
挽李興海浩然宜活	李宜活	칠언고시	1627추정

위의 표에 나타난 전체 42수의 시를 일별해 보면, 우복의 만시는 크게 조정 관료로서의 입장에서 지은 것과 개인적 친분 관계에 의해 지은 것으로 구분된다. 망자와의 관계가 불분명한 5수를 제외하면, 8수 가량을 공적 관료의 입장에서 지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 만시는 대체로 대상 인물을 명명하기 전에 그의 관직을 제시하고 있어, 추도의 목적이 망자의 공적 활동에 대한 것임을 알 수 있게 한다.

반면 우복이 개인적 친분에 의해 지은 만시는 대체로 스승 柳成龍 및 동향의 벗들과 학연으로 엮힌 선·후배에 대한 것이 26수를 차지하며, 친인척 관계에 의해 지은 것이 3수 존재한다. 곧 우복의 만시는 그의 관료적 입장을 대변하기보다, 가까운 이들의 죽음을 맞이하는 그의 개인적 傷心을 드러내고 망자의 삶과 그와의 관계를 추억하기 위한 목적으로 창작되었던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는 가까운 이들의 죽음을 바라보는 우복의 시선이 복합적으로 제시되었을 것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이들 시를 詩體에 따라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우복집』 소재 만시의 시체별 분류

	칠언율시	칠언고시	오언율시	오언고시	계
시제	20	5	3	10	38
작품 수	24	5	3	10	42

곧 우복은 만시를 지을 때 칠언율시의 형태를 가장 선호하였으며, 고시의 형태로 길게 서술할 때에는 오언의 형태를 많이 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의 형식에 따라 작자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정감의 깊이에도 차이가 있을 것이나, 이는 반드시 작자와 망자의 친소 관계에 따른 것만은 아닌 듯하다. 곧 공식적 관료의 입장에서 만시를 지을 때에는 修辭的 요소를 고려하여 長形의 고시를 택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서, 다음 장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만시의 형상화 방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Ⅲ. 輓詩에 나타난 죽음의 형상화 방식

대상 인물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창작된 만시는 그 주된 정조가 悲感의 표출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만시는 단순히 죽음 자체의 의미를 밝히려 하기보다는, 가까운 사람의 죽음으로 인한 남아있는 자들의 한없는 슬픔을 노래하고, 죽은 자의 덕과 가치를 새삼스럽게 느끼고 찬미하며 그의 부재로 인한 공허함을 서술하는 내용을 담게 된다.⁴⁾ 결국 만시의

4) 안대회, 『韓國 漢詩와 죽음의 문제 - 조선후기 輓詩의 예술성과 인간미 -』, 『韓國漢詩研究』 3, 1995, 50쪽.

문학성과 내용을 가름하는 중요한 요소는 망자가 누구인가, 그가 작자와 어떤 관계 하에 있는 인물인가 하는 것이 중심이 되며, 이에 따라 망자의 죽음에 대처하는 작자의 심리와 태도가 결정된다고 하겠다. 우복 역시 이러한 점에 의거하여 만시를 지었을 것이므로, 이 장에서는 만시에 나타난 서술 상의 특징을 바탕으로 죽음의 형상화 방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1. 典故를 차용한 관습적 형상화

만시의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그 창작 동기나 내용이 일률적인 편이어서, 시어와 표현 방식 또한 대체로 관습화되어 있다. 따라서 동일한 典故나 用事가 서로 다른 인물에 대한 만사에서 상투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작품의 전개 방식 또한 망자에 대한 회고나 찬미에 작자의 감상이 보태어지는 식으로 고정화되어 있다. 우복의 만시도 이러한 관습적 형식을 따르며 관용화 된 典故를 사용하여 망자의 죽음을 형상화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아래의 시를 통해 이러한 예를 살펴보도록 하자.

半夜中台坼	한밤중에 중태성이 툭 터졌으니
今年大歲蛇	금년의 대세에는 뱀이 들어 있었다네.
老成終至此	노성한 분 끝내 여기에 이르렀으니
邦國竟如何	나라의 운명 마침내는 어찌 되려는가.
勳業尊盟府	공훈과 업적은 맹부에 모셔졌고
詩書證故家	시서에 밝아 고가임을 증명하였다네.
嗚呼俱已矣	아아!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났으니
萬事一蓬科	만사 모두 무덤 속에 파묻히었네. ⁵⁾

5) 鄭經世, 『鄭相國 挽詞』, 『愚伏集』 권 1.

본 논문에 인용한 원문의 번역은 정선용 역, 『國譯 愚伏集』(민족문화추진회, 2004)

위의 작품은 우복이 좌의정을 지낸 藥圃 鄭琢(1526-1605)의 죽음에 대해 지은 만시이다. 그는 이 시에서는 정탁의 죽음을 '중태성의 터짐 [中台坼]'에 빗대고, 그가 죽음에 이른 원인을 당년의 간지(乙巳)에서 찾고 있다. 간지에 뱀[巳]이 들었다는 것은 국가적 위기가 닥치거나, 뛰어난 인재를 잃게 되는 징조를 암시하는 장치로 빈번히 인용된다. 이와 함께 三政丞을 하늘의 三台星에 비유하는 것 또한 관습적 표현의 하나이다.

이러한 비유는 정탁의 죽음이 단순히 개인적 親友관계에 의한 슬픔을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의 인재 손실이자 불행임을 드러내는 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복은 尾聯에서 그의 죽음을 두고 '모든 것이 다 끝난 것[俱已矣]'이라 칭하면서, 정탁 생전의 업적과 학문이 무덤 속에 묻히고 말았다고 하였다. 여기에는 작자 자신의 개인적인 슬픔이나 애도보다는 담담한 어조로 정탁의 죽음을 정리하려는 우복의 태도가 엿보인다.

그러나 관습적 표현과 구성을 따르는 만시에서도, 망자와의 관계에 따라 우복의 태도는 다양하게 나타난다. 우복이 자신의 스승 류성룡의 죽음에 맞닥뜨려 지은 만시를 통해 이러한 면모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총 3수 중 첫째 수와 마지막 수의 일부분을 제시하였다.

金聲玉色鳳威儀	금성과 옥색으로 봉황의 위엄 갖추었으니
瑞世英姿世所師	좋은 세상 영결의 모습 세상에서 스승 삼았네.
...(중략)...	
人間已矣無耆蔡	인간 세상 떠나시니 시체가 없어졌고
天上依然望尾箕	천상 세계선 의연하게 미기가 보이는구나.

을 참고로 한 것이다.

…(전략)…

山頽此日將安仰	산 무너진 이날 장차 누구를 우러르며
河飲平生更莫因	황하수를 마시던 일 다시 말미암을 곳이 없네.
萬古和風長隔面	만고토록 부는 화풍 가신 스승의 얼굴이고
一天明月是傳神	온 하늘의 밝은 달은 바로 스승의 정신이네.
糜身宦冗違臨穴	관직에 몸 매여서 장지에 달려가지 못하니
慙愧當年築室人	그 당시에 집 지었던 사람에게 부끄럽다네. ⁶⁾

우복은 45세 되던 해인 1607년 5월, 스승 류성룡의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서애의 문하에 든 지 이십 여 년이 되었건만, 여전히 학문의 방향을 헤매고 있다[來往西林二十春, 只今於道尚迷津]'고 하였던 중년의 제자는 스승의 죽음을 두고 '산이 무너진 것[山頽]'이라고 표현하였다. 우복에게 있어 스승의 용모는 '金聲玉色'과 같이 기억되었으며, 그의 가르침과 정신은 '萬古和風'과 '一天明月'로 표상되어 있었다. 이러한 형상화 방식이 서애만을 수식하는 개성적 표현이라 할 수는 없지만, 퇴계 문하에서 서애의 위상과 학문적 깊이와 그에 대한 우복의 개인적 존경과 경외를 나타내기에는 충분한 수식으로 보인다.

이러한 서애의 죽음을 그는 '蓍蔡가 없어지고, 尾箕가 보인다'⁷⁾고 하여, 인간세상의 슬픔이자 천상계의 다행으로 표현하고 있다. 곧 자신에게 있어 스승의 죽음은 산이 무너지는 듯한 슬픔이었으나, 스승은 천상에서 '一天明月'의 모습으로 만고의 師表로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는 스승의 죽음에 곧바로 달려가지 못하고, '문하의 여러 사람들

6) 鄭經世, 「西厓先生挽詞」, 『愚伏集』 권 1.

7) 蓍蔡는 옛날 점을 치는 데 사용하던 蓍草와 큰 거북을 가리키며, 尾箕는 尾星과 箕星을 의미하는데, 시체가 사라졌다는 것은 지상에서 대신이 죽었다는 뜻이며, 미기가 보인다는 것은 대신이 죽어 천상에서 미성과 기성 사이의 별이 되었다는 뜻이다.

과 더불어 神位를 만들어 놓고 곡하기를 五服相弔儀와 같이 하였⁸⁾을 뿐이었다.

따라서 그는 孔子가 죽고 3년이 지난 후에 문인들이 모두 떠나고 나서도, 子貢이 공자의 묘 마당에 집을 짓고 3년간 살았던 고사를 떠올리며, 제자의 예를 다하지 못하는 자신의 상황을 부끄럽게 여길 수밖에 없었다. 자공의 고사는 스승의 죽음을 지키지 못한 제자들의 哀悼文에서 흔히 인용되는 고사이지만, 우복은 이를 스승의 부음을 듣고도 初喪에 달려갈 수 없는 자신의 상황과 결부시켜 서술함으로써 안타까운 심정을 더욱 절실히 드러내는 장치로 삼고 있는 것이다.

한편 우복은 공적 관료의 입장에서 왕이나 왕족에 대하여 만시를 짓기도 했다. 인조의 생모인 仁獻皇后가 승하하자 「啓運宮挽詞」를 짓고, 인조의 아버지인 정원대원군을 인현왕후의 옆에 천장할 때 「大院君遷葬挽詞」를 지었으며, 선조의 무덤을 옮길 때에 「宣祖大王遷陵挽詞」를 지었다. 이 중 「宣祖大王遷陵挽詞」를 통해 그가 국가의 요청에 의해 공식적으로 지은 만시에서는 선왕의 죽음을 어떻게 형상화하였는지 살펴볼 만하다.

인조 8년(1630) 穆陵의 위치가 물이 차서 불길하다는 말이 있어 천릉하게 되었을 때, 우복은 아래와 같이 5언 40구의 만시를 지어 올린다.

…(진략)…

憶昔霑殊渥	지난날에 나는 깊은 은혜 받아서
登身廁邇英	조정에 나가 못 현인들 틈에 끼었네.
幾番承晉接	몇 차례나 임금 곁에서 모셨던가
時許討義經	나에게 가끔 주역의 이치 토론케 하셨다네.

8) 『愚伏集·別集』 권 4. 『年譜』, 「丁未 萬曆三十五年(1607)」條. “與及門諸公爲位而哭如五服相弔儀.”

刻骨家人遇	친족처럼 대한 은혜 뼈에 새겨졌고
駢顏國事名	국사라고 부르시어 얼굴 붉혔었네.
烏號傷往歲	지난날에 오호 당해 상심하였는데
象設愴新塋	새 무덤에 상석 놓자 마음 비통하여라.
改石音初下	지석 새로 쓰라는 명 내리어
摹天意已驚	천덕을 형성하려니 뜻이 이미 놀라네.
只思勤掇拾	지난 사적 주워 모을 생각 하려니
那得狀高名	고명한 덕을 어찌 형상하리오.
荷籠丘山重	받은 총해 산언덕 같이 무거우니
酬恩性命輕	은혜 갚기에는 내 목숨도 가볍다네.
遙瞻運緩	구름 가득 낀 먼 하늘 바라보며
空有淚縱橫	부질없이 줄줄 눈물만 흐르누나.

인용문은 작품의 후반부로, 이에 앞서 1-24구에서는 선조의 성덕과 국왕으로서의 업적을 찬미하였고, 25-30구 사이에는 자신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었던 추억을 제시하였으며, 마지막 31-40구에서 천릉에 대해 만사를 올리게 된 자신의 심정을 읊조리고 있다. 여기서 우복은 선조의 崩御를 임금의 죽음을 뜻하는 '烏號'의 고사로 표현하면서 남은 신하로서의 슬픔을 비유하였고, 자신에게 내린 선조의 은혜가 뼈에 새겨졌다거나, 산언덕처럼 무겁다고 하는 일상적 비유의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친히 '주역의 이치를 토론케 하시고', 자신을 두고 '국사'라고 일컬어 몸 둘 바를 모르게 했던 구체적 기억이 제시됨으로써, 관습적 표현을 사용하면서도 감회의 내용은 상투성을 뛰어넘게 하였다.

요약하자면 우복은 공적 관료의 입장에서 만사를 지을 때에는, 만사 대상 인물의 인물됨과 그의 죽음에 대한 자신의 감회를 서술할 때 죽음과 관련된 일반적 전고를 차용하되, 대상 인물과 자신의 관계를 고려하여 상황에 맞는 관용구를 활용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관습적 형상

화의 방식으로 대상 인물의 공적 지위나 사회적 위상을 부각시키되, 여기에 각 인물과 연관된 자신의 기억을 특별히 附加함으로써 관습적 표현으로 인한 상투성을 극복하였던 것이다.

2. 서사적 진술을 통한 구체적 형상화

한편 우복은 만사에서 기리는 대상이 자신과 어려서부터 절친한 벗이였거나, 혈연과 혼맥 등으로 이어진 친인척 관계에 있는 인물일 때는 대상 인물의 죽음을 구체적 사건과 함께 형상화하는 경향을 보인다. 곧 대상 인물과의 인연을 회상하며, 그의 삶과 서로 간의 교류를 구체적 사건이나 일화 등을 통해 일깨움으로써 그의 죽음이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먼저 벗의 죽음을 바라보는 우복의 태도를 살펴보자.

(가) 夙昔心期托弟兄 邇來離闊歎晨星 只愁瘴地無消息 那意窮途隔死生 惻切道存人所笑 峨洋絃在世誰聽 攀轎一慟君應識 我是當年范巨卿	예전에 맘 허여하여 친형제와 같았기에 근래에는 서로 간에 소식 뜰함 탄식했네. 변방에서 그대 소식 없는 것만 걱정했지 길 막혀서 서로 사생 격할 줄을 뜻했으랴. 시절의 도 지냈으며 사람들이 웃었나니 아양곡은 남았으나 누가 다시 들으리오. 상여 잡고 통곡하는 내 맘 그댄 응당 알리 나는 바로 그 당시의 범거경이리오. ⁹⁾
--	---

(나) 水淡蘭芳四十春 愛君襟度瑩無塵 始因惻切常加敬	맑은 물에 난초같이 사십 년을 사귀면서 그대의 마음 맑아 티끌 없음 좋아했네. 처음에는 시절의 도 인해 항상 공경했고
-----------------------------------	---

9) 鄭經世, 『挽金省克昌遠』, 『愚伏集』 권 1.

遍閱酸醅轉見親	신맛 단맛 다 본 뒤엔 되레 친함 드러냈네.
丹訣欲論書已廢	단결 논해 보고프나 책은 이미 없어졌고
濛濛雖在跡還陳	호랑 비록 남았으나 자취 되레 북어졌네.
泉聲夜夜鳴環佩	샘물 소리 밤마다 패옥 치는 소리 낼 때
長記寒齋對榻辰	찬 서재서 마주하던 밤 내 길이 기억하리. ¹⁰⁾

위의 두 시는 각각 金弘微와 成灋의 죽음에 지은 만시이다. 이 두 작품은 언뜻 보기에는 오랜 두 벗의 죽음 뒤에 각각 함께 하지 못했던 시간을 그리워하거나, 함께 했던 시간을 추억하며 벗의 부재를 아쉬워하는 마음을 읊고 있는 것으로 읽힌다. 그러나 이 두 작품 뒤에는 각각 이들 두 사람에 얽힌 우복의 서사가 숨어 있다.

먼저 (가)의 경우를 보자. 시의 서두에서 우복은 친형제와 같던 김홍미와 오랜 시간 떨어져 소식조차 뜬했던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다. 이들 사이의 이러한 물리적 거리감은 우복이 김홍미에게 답한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어제저녁에 비로소 영형(令兄)께서 옛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었으니, 위로되는 마음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중략)… 한 해가 넘도록 떨어져 있다가 하루 동안 만나 보게 되었으니, 스스로 잔인한 사람이 아니라면 이런 기회를 저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중략)… 생각건대 연악(淵岳)의 옛 터전에는 소나무가 울창할 터인데, 마침 두 곳의 가운데에 있으니 이곳에서 합잠(盒簪)하여 선군자(先君子)께서 유상(遊賞)하던 자취를 찾아본다면 아주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마땅히 영형께서 편지에 하신 말로 여러 어르신들 및 벗들에게 고하고서 술병을 차고 달려가겠습니다.”¹¹⁾

10) 鄭經世, 『挽成士悅濫』, 『愚伏集』 권 2.

11) 鄭經世, 『答金昌遠 弘微』, 『愚伏集』 권 10.

“昨暮 始聞令旆來故里 不勝蘇慰 方欲伴候動靜 仍稟會 晤之期 令翰先辱 而正說出此間料理 眞所謂其莫如蘭者矣欣荷千萬 隔年之別 一日之逢 自非忍人 不可負此 機會 而令因氣

이 편지에서 보듯, 동향 출신인 우복과 김홍미는 각자의 관직 생활과 臥病생활 등으로 자주 볼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다. 일 년만에야 겨우 함께 고향 땅에 거처하게 되었으나, 서로의 몸이 건강하지 못하여 먼 걸음을 할 수 없었던 것이다. 중간 지점인 甲長山 아래, 淵嶽에서 만나려는 약속을 한 후, 그 자리에 술병을 차고 달려가겠다는 우복의 글에서 만남에의 간절함이 얼마나 컸던가를 알 수 있다.

생전의 만남 또한 이토록 간절한 것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김홍미가 죽기 전에 이들 사이에는 한동안 서신조차 오가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 들려온 것이 벗의 부고였으니,¹²⁾ 김홍미의 죽음에 우복은 만사와 제문을 함께 지어 “내게 허물 있으면 누가 고해 주겠으며, 내게 의문 있으면 누가 밝혀 주겠는가. 내게 기쁨 있으면 누가 축하하겠으며, 내게 근심 있으면 누가 위로해 주겠는가.”¹³⁾ 라고 할 정도로 벗을 잃은 슬픔이 지극함을 알게 했다. 제문의 이러한 구절을 통해, 경련의 아양곡은 남았으나 다시 들을 이 없다는 표현이 단순한 상투적 수사가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러한 벗의 장례에 마저 참석하지 못하는 자신의 마음을 張劭의 상여를 잡아끌던 范巨卿의 마음에 빗댄으로써, 상실감의 크기를 대신하고자 했던 것이다.

困 不堪到玉成 病蹤亦閉蟄有年 過不得 蘇湖一步地 惟淵岳舊墟有滿地松陰 而適當兩地中央 盍簪於此 以尋先君子遊賞之蹤 極是好事 當以令書意 布告僉丈及諸友 佩壺馳進”

12) 김홍미의 죽음은 술로 인한 병이었던 것으로 짐작되는 바, 우복이 『이사화과 이사회에게 답한 편지』에서 “술은 바로 사람을 죽이는 짐독(鴆毒)입니다. 김창원(金昌遠)이나 김이회(金而晦) 등 여러 사람들은 병이 든 뒤로 술을 끊으려고 하였으나 끊지 못하였다가 마침내 죽음에 이르고 말았으므로, 항상 형을 위하여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언급한 바 있다.(鄭經世, 『答李士廓, 士會 弘道 亨道』, 『愚伏集』 권 11.

13) 鄭經世, 『祭金參議昌遠文』, 『愚伏集』 권 16. “余有過其 誰告 余有疑其誰辨 余有喜兮 誰慶 余有憂兮誰唁”

(나)의 만시 또한 이면에 보이지 않는 사정이 숨어 있다. 성람은 1620년 세상을 뜨게 되는데, 우복은 이 해 숙부의 상을 당해 상중에 있느라 성람의 초상에는 참석하지 못하였다. 곧 그에 대한 제문에서 ‘공이 처음 易簣하던 그날은 바로, 숙부께서 廢床하던 때이었다네. 걸음조차 제대로 잘 못 걸었는데, 어찌 감히 달려갈 수 있었으리오.’¹⁴⁾ 라고 하여, 성람의 상에 달려갈 수 없었던 자신의 사정을 서술한 바 있다.

청년기에 面識한 뒤 40여 해를 함께 해 온 벗으로, 함께 찬 서재에서 『參同契』를 논하며 학문을 강마하던 벗이자 항상 공경해 마지않던 벗과의 죽음을 단 56자로 서술하고 있지만, 그 행간에는 벗과 함께 했던 무수한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났으리라 짐작된다. 시의 말미에 우복은 주를 달아, “공은 항상 우리 집의 연못가에서 나는 샘물 소리를 좋아하여 말하기를, “이는 패옥이 부딪치는 소리이다.” 라고 하였다[公常愛余池上泉聲曰此佩玉聲也].” 라고 하면서, 시의 때 구절이 모두 벗의 언행을 떠올리며 지었던 것임을 한 번 더 일깨우고 있다.

오랜 벗의 죽음 못지않게 가족과 친족의 죽음 또한, 우복에게는 형용하기 힘든 슬픔이었을 것이다. 그가 두 아들을 모두 생전에 떠나보내면서도 아들들에 대한 만시를 짓지 않았던 것은, 아버지의 입장에서 먼저 간 자식들의 상을 치르면서 차마 그 슬픔을 몇 구의 시로 형용해 내기 어려웠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따라서 여기서는 우복이 사위 노석명에 대해 지은 만시를 통해, 가족의 죽음을 경험한 그의 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未斬蘇翁澤 소옹이 남긴 은택 안 끊어졌고
親遊沈老門 심로의 문하에서 노닐었었네.

14) 鄭經世, 『祭成士悅文』, 『愚伏集』 권 16. “公初易簣 叔方廢床”

詩書學而悅	시와 서를 배우면서 맘 기뻐했고
孝弟行之原	효와 제를 모든 행실 근본 삼았네.
泣血三年善	피눈물로 삼 년 동안 상을 치루매
柴羸二豎根	몸 약해져 이수가 뿌리 박았네.
骸成纔有立	마른 뼈는 겨우 몸을 지탱했는데
花落忽無言	꽃이 지자 갑작스레 말 없어졌네.
往事那堪說	지난 일을 어찌 차마 다 말하리오
良緣解作冤	좋은 인연 원통함이 되고 말았네.
…(중략)…	
面目森如見	얼굴 모습 삼삼하여 어른거리니
心情況可諉	마음과 정 어찌 잊을 수가 있으리.
忍看啼鶴髮	어찌 차마 늙은 부모 우는 걸 보리
願得長獅孫	후사 어서 자라나길 내 바라노라.
抱病違臨穴	몸 아파서 장지에 못 따라가고서
題詩獨斷魂	시 짓자니 나의 혼은 끊어지누나.
非君誰爲勸	그대 아님 누굴 위해 애통해하리
應有不亡存	사라지지 않는 혼령 응당 있으리. ¹⁵⁾

노석명은 노수신의 손자이자 심희수의 외손으로, 우복의 큰 사위가 되었으나 불과 而立의 나이에 불현듯 세상을 떠나고 만다. 이는 1622년의 일로, 노석명이 司馬試에 급제하여 경축하는 잔치를 베푼 지 불과 3년이 채 되지 않아서 벌어진 일이었다. 삼년상을 거행하며 몸에 박힌 병을 이기지 못하고 죽은 사위를 보며, 우복이 할 수 있는 것은 ‘후사가 자라나길 바라는 것’과 그를 위해 ‘시를 짓는 것’ 밖에 없었다. 사위의 황망한 죽음을 “봄바람을 삼십 년간 쫓아 오다가, 꽃이 지매 갑작스레 말 없어졌네.〔春風三十 花落無言〕” 라고 한 이태백(李太白)의 시 구절을 들어 표현함으로써, 그 갑작스러움과 홀연함을 드러낼 뿐이었다.

15) 鄭經世, 『挽盧撈碩命』, 『愚伏集』 권 2.

“喪은 감정을 그대로 나타내어 곧바로 행할 수 없기 때문에 衰麻와 곡하고 발 구르기의 數를 제정하였으니 이것은 절제하기 위해서이다. 그렇다면 그 근본은 슬픔일 뿐이다.”¹⁶⁾라고 한 우복이지만, 사위의 죽음 앞에 혼이 끊어질 듯 애절한 심정을 숨길 수 없었던 것이리라. 이는 아들들의 죽음 못지않게 우복에게는 크나큰 상심이 되었던 바, 우복은 신여섭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나는 노생의 죽음에 곡한 뒤로는 마음이 忽忽하기만 하여 스스로 갈피를 못 잡고 있네. 비록 수명의 길고 짧음에는 운수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는 있으나 스스로 감정을 억제하지는 못하겠으니, 참으로 이른바 정이 솔리는 바라는 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네.”¹⁷⁾라고 자신의 심사를 말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복이 망자의 죽음을 서사적 사건과 함께 서술하며 구체적 행위나 일화를 통해 망자와의 관계를 회상하며 지은 만시는 친우 또는 친족 관계에 있던 인물에 대해 지은 것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만시 또한 장르 자체의 관습성 때문에 인물에 대한 평가와 작자의 감회 서술이라는 일반적 구성을 취하고 있지만, 그 내용에서는 전자와 차이가 뚜렷하다. 즉 만시에서는 한두 줄로 언급된 대상 인물과의 기억은, 그의 문집 곳곳에 남아 있는 기록을 찾아 읽을 때에 마침내 한 편의 완전한 서사물처럼 완결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우복은 만시라는 장르의 특성 상 대상 인물에 대한 추억과 그의 죽음에 대한 자신의 비감을 제문에 서와 같이 오롯이 쏟아내지는 못하였지만, 짧게는 10여 년, 길게는 수십 년에 얽힌 인연을 행간의 서술에 담아내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16) 『論語』, 「八佾」 제4장 楊氏註.

“喪不可以徑情而直行 爲之衰麻哭踊之數 所以節之也 則其本戚而已.”

17) 鄭經世, 「答申汝涉」, 『愚伏集』 권 12. “經世 自哭盧甥以後 心緒忽忽 不自聊 雖知修短之有數而不能自抑 眞所謂情之所鍾 正在我輩也”

IV. 愚伏 輓詩의 서정성

만시에 나타나는 애도는 작가 개인적 감정이지만, 이는 때때로 사회적으로 전염되어 유교 사회의 전범적 인물을 배워야 한다는 교시적 기능을 자연스럽게 수행하기도 한다.¹⁸⁾ 우복의 만시에서도 공적 관료의 입장에서 국가적 공적을 세운 인물을 기리거나, 왕이나 왕족의 죽음을 애도하는 만시를 지을 때에는 이러한 측면이 부각되어 나타났다. 그러나 망자와의 관계가 사적 친소에 좌우되더라도, 그 대상이 작자가 존경하여 높이고자 하는 스승이나 선배 학자일 때에는 개인적 애도보다는 망자의 공적 업적에 대한 칭송을 드러내는 데 치중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속성 때문에 여러 연구자들이 만시의 문학성이나 작품성을 논할 때, 시라는 장르가 지니는 서정성을 전제로 하면서도, 애도의 교시적 기능에 중점을 둔 교술성이나, 망자의 사회적 업적이나 지위에 대한 서술에서 강조되는 서사성을 만시에 나타난 문학성으로 이해하였다.¹⁹⁾ 우복의 만시 또한 이러한 성격이 모두 드러나고 있으나, 더욱 주목해야 할 점은 우복이 개인적 친분 관계에 따라 자의적으로 지은 만시에서 드러나는 몇몇 특징들일 것이다.

첫째, 우복은 개인적 친분 관계에 있는 인물에 대한 만시를 지을 때 대상 인물의 인품이나 학문에 대한 칭송보다 자신과의 인연을 전반부에 배치시키고 있다. 공적 관료의 입장에서 지은 만시들이 전반부에서 길게 대상 인물의 사회적 업적과 공훈을 칭송하고 있는 것에 비해, 개인적 입

18) 전재강, 위의 글, 267-268쪽, 각주 51)번 참고.

19) 전재강, 위의 글.

장에서 지은 만시들은 대상 인물과 자신이 어떤 관계에 있었으며, 어떠한 사연으로 그의 죽음을 슬퍼하는 지에 대한 서술이 전체 내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이는 만시가 누군가의 죽음에 대해 관례적으로 창작되는 글이 아니라, 작자의 절실한 슬픔을 담아 건네지는 한 편의 서정시가 될 수 있게 하는 가장 계기가 된다.

둘째, 서정이라는 장르적 제약으로 인해 대상 인물과의 일화를 기승 전결의 구조로 제시할 수 없는 만사에서, 우복은 상황에 맞는 전고의 인용이나 시구에 대한 自註를 통해 구체성을 보완하여 만시의 장르적 제약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이는 절구나 율시의 짧은 시형에 다 담을 수 없는 심경과, 자신과 인물 간의 개인적 기억에서 말미암은 구절을 이해시키기 위해 모색해 낸 방법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우복의 만시는 대상 인물과 관련된 문집 속의 여타 기록들 속에서 이해할 때, 창작의 맥락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고 작품의 특징이 선명히 부각된다 하겠다. 만시 자체가 죽음에 대하여 창작되는 祭文·墓碣과 墓誌銘·碑文과 碑銘 등과 함께 일련의 과정 속에서 창작되는 글인 만큼, 각각의 장르적 특징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복의 만시에 대한 이러한 접근을 통해 관습적 글쓰기의 의의를 재평가하고, 만시가 지니는 문학성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가능케 할 것이다.

V. 나오며

본고는 우복의 만시를 통해 만시 또한 여타의 한시 작품과 마찬가지로 작가적 역량을 드러낼 수 있는 서정시이자, 표현 방식과 서술에 있

어서도 다양한 변용을 피할 수 있는 장르임을 밝혀내고자 했다. 우복이 자발적 정감의 표현으로써 만시를 창작한 것은 親友나 血族 등의 긴밀한 관계에 있던 인물의 죽음에 인하여 창작된 것이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만사에서 우복은 망자와 자신의 관계에 들어맞는 적절한 고사를 인용하거나, 대상 인물과의 특별한 일화를 제시하면서 이해를 돕기 위해 自註를 다는 방식 등으로 시상을 전개해 나갔다. 산문에 비해 시 자체가 지니는 함축성과 형식적 제약으로 인해, 서사를 세밀하게 전개해 나가거나 감정의 여과없는 토로는 불가능하였지만, 문집에 산재해 있는 여타 관련 기록들을 통해 만시에 나타난 목소리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죽음에 대처하는 작자의 이성이 어떻게 제어되고, 그 이면에서 솟구치는 감정이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살핀다면 만시라는 장르 또한 지극한 슬픔에 처한 작가의 창작 역량을 보여주기에도 충분한 장르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는 비단 우복의 경우만이 아닐 것이므로, 다른 작가와의 비교를 통해, 혹은 시대별로 만시 창작 성향의 변화를 살펴본다면 또 다른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문헌 】

- 鄭經世 著, 정선용 역, 『국역 우복집』 1-6, 민족문화추진회, 2005.
 安大會, 「韓國 漢詩와 죽음의 문제 -조선후기 輓詩의 예술성과 인간미-」, 『韓國漢詩研究』 3, 1995, 49-80쪽.
 이남면, 「鄭斗卿 輓詩 연구」, 『大東漢文學』 35, 2011, 239-276쪽.
 전재강, 「寒岡 輓詩의 성격 연구」, 『국어교육연구』 46, 국어교육학회, 2010, 245-272쪽.

- 전송열, 『옛 사람들의 눈물 - 조선의 만시 이야기 -』, 글항아리, 2008.
- 정시열, 「愚伏 鄭經世 祭文 研究 - 祭文의 哀傷性과 관련하여 -」, 『우리어문연구』 29, 2007, 333-362쪽.
- 최재남, 『韓國哀悼詩研究』, 경남대학교출판부, 1997.
- 河政承, 「고려후기 輓詩에 나타난 죽음의 형상화와 미적 특질 - 목은 이색의 시를 중심으로 -」, 『東方漢文學』 50, 2012, 35-64쪽.

Abstract

The Figuration Method about Death in Mansi(輓詩)
by Woobok Jeong Gyeong-se

Son, Yu-Jin

This paper aims to study the figuration method and attitude of the poet, Woobok Jeong Gyeong-se(1563-1633), a prominent scholar in the mid-Joseon Dynasty, towards a death in his monody. In "Woobokjib", a collection of his poems, there were around 190 chinese poems, and 42 monodies under 38 subtitles, which makes up about 20 % of his poems.

Like characteristics of other general monodies with fixed poetic words and expressions, in terms of describing the deceased, in Woobok's poetry, similar kinds of traditional events and poetic expressions were found in a cut-and-dried manner, and, likewise, the manner of developing the story appeared conventional. That is, when he wrote a monody from the position of a public officer, he described the deceased's personality, as well as his own emotions about him. In describing events, he wrote in the general style in the time, yet, at the same time, in describing the deceased, he used proper idioms in accordance with the situation with the consideration for the dead. By the use of figuration of idioms, he enhanced the dead person's official or social position, and, by adding his own memories, he overcame the cliché in the poetry.

However, when it was about his close kith and kin, due to the

conventional aspect of the genre itself, its form was constructed in a general way; evaluation about the person and his personal feelings, but contents were far different from the others mentioned above. In other words, all the memories of the deceased mourned in the monodies would only be completed when all collected memories of him were combined, just like understanding a narrative work.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genre of monody, he was not be able to express all his griefs about the memories of the person and his death into the work, but we could see that he tried to explain the connection between the dead and himself, which might had been be longer than 10 years.

Based on all this evidences, when Woobok wrote a poem dependent on his friendship with the deceased, he positioned the connection with the person in the front part of his poetry in order to avoid using cliché. In addition, he attempted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genre with the support of added concreteness: quotations of traditional events relating to the situation and annotation of line. Therefore, his intentions in his creativity can only be completely understood with the effort of additional reading about the dead in a relevant collection or other records, and then only the characteristics of the work can stand out.

Key Word

Jeong Gyeong-se, Mansi(輓詩), Death, conventional, concreteness, lyricism

▪ 논문투고일 : 2013.12.6. 심사완료일 : 2014.2.13. 게재결정일 : 2014.2.14.